

미사 안내		 <p>천주교서교동성당 http://www.seokyo.or.kr</p>	성무 안내	
특이 이유	18:00 (일 반)		병자성사	신청 시 수시로
주 일	06:00 (일 반)		봉성체	매월 마지막 금요일
	09:30 (주일학교)		유아세례	3월.6월.9월.12월 첫 토요일 오후2시
	11:00 (교 중)		혼인면담	1개월 전 신청
	18:00 (청 년)		축복식	신청시 수시로
평 일	06시 월 10시 화. 수. 목. 금. 토 19:30 (화, 수, 목)		주일학교(교리) 안내	
성모신심미사 : 첫 주 토 10시		주일학교	주일 10:30-11:30	
성시간 : 매월 첫 목 19:30 미사		성소개발비	성소자 지원을 위한 교무금1개월더하기 (년)	
고해성사 : 매 미사 20분 전		04054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5길 12 ☎ 326-1784 · 1785(팩스) 주임신부 : 이종남 라이문도 326-1781 부주임신부 : 홍웅기 아우구스티노 326-1782 전교수녀 : 임 바드리시아, 이 아녜스 326-1783 사목회장 : 임영근 모세 010-9410-5409 연령회장 : 오재호 펠릭스010-3719-9720		

“기도의 생활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”

“생활의 기도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”

☞ 세례식과 첫영성체

주일교리반 세례성사가 19일(토)오후7시30분에 있으며, 첫영성체는 20일(주일) 교중미사중에 있습니다.

☞ 다음주일 민족화해를 위한 2차헌금

다음주일(20일) 민족화해를 위한 2차헌금을 봉헌합니다.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해 주십시오.

☞ ‘초’ 공예 전시

임 바드리시아 원장 수녀님 지도로 6개월간 배우고 제작한 ‘초’ 공예품을 예수성심대축일인 11일(금)부터 13일(주일) 교중미사후까지 전시를 합니다.

☞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희년 목주기도

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희년으로 시작된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가 지난주일(6일)까지 본당교우들이 봉헌해 주신 410,986단과 꼬미시움에서 봉헌해 주신 726,975단을 합쳐 1,137,961단으로 100만단을 달성하였습니다.

☞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희년 도보순례

김대건신부님과 함께하는 순례안내 책자를 만들어 교우분들께 배부하고 있습니다. 순례안내 책자를 2종류중 1부씩 가져가시고 순례와 기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.

☞ 성전문 교체

2층 성전입구 문을 교체 합니다. 새롭게 단장될 성전문을 위한 봉헌을 해 주실 교우분이 계시면 본당사무실을 통하여 문의와 봉헌을 해 주십시오.

☞ 본당살림과 전입교우

주보7면에 전입을 오신 교우 가정과 5월 본당살림이 나와 있습니다. 구역에서는 전입을 오신 가정을 환영해 주시고 구역과 본당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† 교무금 †

교회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내는 봉헌금입니다, 교무금은 가족 구성원중 신자인 가족 구성원들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합니다.

(재)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
국 민 : 032-25-0013-402 · 우 리 : 1005-101-115034

☞ 교무금, 성소개발비 신립과 납입요청

교무금 신립과 교무금 1개월 더내기 성소자 양성을 위한 성소개발비도 함께 납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빈첸시오 봄철 의류수집

노숙인을 위한 남성용 의류를 수집합니다. 봄, 여름용 남성의류와 모자, 신발, 가방(배낭)을 수집합니다.

하느님의 몫 봉헌
(교무금, 감사헌금은 계좌이체와 은행수납 가능 - 1층 계시판 참조)

교 무 금.....	7,990,000
주일헌금.....	2,556,500
감사헌금.....	1,780,000
공헌진100,000	김준호 요셉.....100,000
정맹자500,000	초 공예(10명).....1,000,000
익 명.....	80,000
성전문 교체 봉헌금	
익 명.....	1,000,000
익 명.....	200,000
(노숙자돕기 익 명 200,000)	

미 사 성 가 (변경 될 수 있음)	입 당 62	봉 헌 213. 218	성 체 178, 187	파 견 199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

주님 -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